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 경주지부 14기 19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5.27(수)

## 공교육이 책임지는 변화

### 이용기 후보 공약, 노동자·학부모 현실과 맞닿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부모와 노동자가 교육감 선거에서 중요하게 보는 문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모아진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 지역과 형편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 기초학력을 학교가 책임지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용기 경북교육감 후보의 공약은 이러한 요구와 맞닿아 있다. 교육비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통학과 돌봄, 아이들의 건강, 기초학력, 작은학교, 노동존중 교육까지 공교육이 책

임지는 방향을 담고 있다.

교육비 부담 완화와 기초학력, 돌봄, 학교생활 개선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약이 가정과 아이들의 생활에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이용기 후보의 공약은 교육 문제를 가정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고,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노동자 가정과 학부모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이용기 후보의 “기본사회를 위한 교육비 해방선언”은 교육비 부담을 개인에서 떠넘기지 않고

공공이 책임지는 방향을 담고 있다. 청소년 무상교통, 농어촌 등·하교 버스 교육지원청 책임제, 고3 수능 응시료 지원, 특성화고 자격증 응시료 지원, 초·중 체험학습비와 수학여행비 지원은 학부모가 바로 체감할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정에만 떠넘기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생활을 지키는 공약도 중요하다. 9시 수업 시작, 점심시간 80분 보장, 아침 과일간식 제공, 마음 보듬기 통합지원, 학생 주치의 제도, 1학생 1스포츠는 아이들을 경쟁으로만 몰아넣지 않고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맞벌이 노동자 가정 입장에서 아이들의 생활과 건강을 공교육이 함께 살피는 변화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경주지역 현실과 맞닿은 공약도 있다. 청소년 무상교통, 등·하교 버스 교육지원청 책임제는 도심과 읍면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부담은 줄이고, 학부모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작은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더 멀리 이동해야 하는 지역 현실과도 연결되어 있다.

기초학력 문제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 끝까지 도와주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이용기 후보는 1:1 맞춤 학습지원과 정서·생활 통합지원, 읽기·쓰기·토론 기본교육을 통해 공교육 안에서 아이들을 책임지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학교 안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받고,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떠밀리지 않도록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공약도 노동자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이용기 후보는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학생·교직원·학부모 의회 설치,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조활동 보장을 제시했다. 학교가 노동을 존중해야 아이들도 노동의 가치

를 배울 수 있다. 학교에서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AI 시대 교육 역시 단순히 기계를 잘 다루는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용기 후보는 독서·글쓰기·토론·교육, 학생이 설계하는 교육과정, AI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 디지털 섹터 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람과 관계 맺는 힘을 함께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용기 후보의 공약은 교육비를 줄이는 데 머물지 않는다. 노동자 가정의 생활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지역과 부모의 형편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갈라지지 않도록 공교육의 책임을 넓히는 내용이다. 또한 학교에서 노동이 존중받아야 아이들도 노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학부모가 함께 주목해야 할 공약이다.

공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게 이용기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고,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길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용기의 약속**

건강한 성장학교 | AI 전환시대 교육 | 교육주권·민주주의

- 1 아침 과일 간식 제공**  
학생 건강권 보장  
지역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 2 학생주치의 제도: 구강·건강 통합 관리**  
지역 의료기관 협약, 네트워크 구축  
학교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3 1학생 1스포츠**  
체력 향상 및 비만 예방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
- 4 AI 전환시대, AI 교육 주권 실현**  
AI를 활용해 창조하는 사람으로 성장  
비판적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 5 학생·교직원·학부모 의회**  
교육정책 산하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회 설치  
교육정책 교육주체 참여 결정

이용기 | 민주주의 교육감

민주진보 교육감 이용기 | 경북교육감 예비 후보  
(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장  
(현)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